

나무가 된 아이

남유하 창작동화집 | 황수빈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학년 및 단원:

5학년 1학기 국어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2. 작품을 감상해요 / 10. 주인공이 되어

5학년 도덕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창의적 체험활동 민주시민교육 / 인권

주제어: #장애 #편견 #차별 #다름 #학교폭력 #따돌림 #소망 #꿈

분야: 한국 창작동화, 단편동화집

활용: 토의·토론, 글쓰기, 교육연극

참고자료: 제1-2회 교사 인문학 독서토론, 이효재,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2014-2015

작성: 창원 교방초등학교 김근영 선생님



■ 활동 목표

- 책 속 인물들의 특징과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인물이 처한 상황과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 등장인물이 되어 나라면 어땠는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다.
-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임을 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눌 수 있다.
- 이어질 이야기를 상상하며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 책의 내용 및 책 선정 이유

『나무가 된 아이』는 어린이들 마음에 숨은 편견과 차별, 따돌림, 꿈, 외로움 등을 담은 몽환적이면서도 약간은 오싹한 이야기 모음입니다. 표제작 「나무가 된 아이」에서 준서의 주도하에 반에서 늘 따돌림을 당하던 필순이는 어느 날 나무가 되어 버립니다. 그 나무는 교실을 가득 채울 만큼 자라 눈물을 흘리지만, 어른들은 보지 못합니다. 나뭇잎으로 온통 가려진 교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반쪽이가 사는 세상 속 「온쪽이」, 온쪽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기 어려운 가족들은 온쪽이의 반을 잘라내는 수술을 권합니다. 온쪽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너만 살아남은 엄마, 「뇌 엄마」는 우리 사회의 안락사 문제와 연결 지어 볼 수 있습니다. 「착한 마녀의 딸」은 역사 속 마녀 사냥과 함께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구멍 난 아빠」는 쫓기듯 살면서 자신의 꿈을 잃어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웃는 가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늘 웃는 가면을 쓴 신비로운 전학생을 만나, 결국 주인공도 괴물 같은 웃는 가면이 되는 모습에서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이야기의 흥미진진한 전개로 아이들은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각 단편이 가진 목격화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속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살펴보고,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책 속 이야기를 계기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방법을 찾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9차시
읽기 전	책과 친해지기 - 제목, 출판사, 지은이 알아보기 - 각 단편 그림과 제목을 보고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묵독하기 - 단편별 한 줄 느낌 쓰기	1차시
	단편 고르기 -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과 그 이유 나누기 - 우리 반이 함께 읽을 단편 고르기	1차시
	고른 단편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 반 전체 차례대로 돌아가며 읽기 - 모둠에서 차례대로 돌아가며 읽기 - 짝과 번갈아 가며 읽기 - 혼자 소리 내어 읽기	1차시

단계	활동 내용	총 9차시
	비경쟁 독서토론 - 1단계 제대로 읽기(정직한 독자 과정) - 2단계 질문하며 읽기(질문하는 독자 과정) - 3단계 토론하며 읽기(토론하는 독자 과정)	2차시
읽은 후	선택 활동 「온쪽이」 - 핫시팅으로 인물 탐구하기 - 역할극하기 - 병원에서 만난 다른 온쪽이의 이야기 상상해서 쓰기 「나무가 된 아이」 - 정지 장면으로 표현하기 - 빈 의자 기법 「뇌 엄마」 -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 쓰고, 낭독하기 - 핫시팅으로 엄마, 아빠가 되어 대답하기 - 소리 터널로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 전하기 「착한 마녀의 딸」 -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찾아보기 - 낭독극으로 표현하기(전체) - 책 뒷이야기 꾸며서 연극으로 표현하기(모둠별) 「구멍 난 아빠」 - 등 한가운데에 난 구멍의 의미와 구멍이 커진 이유 생각해 보기 - 그날의 일기 쓰기 - 엄마, 아빠의 꿈이 무엇이었을지, 어떤 삶을 살고자 했을지 상상해서 표현하기 「웃는 가면」 -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변형놀이 하기 - 등장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 찾아보기 - 뒷 이야기 상상하여 쓰기 - 상상한 이야기를 즉흥극으로 표현하기	2차시
	추천사 쓰기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 떠올리기 읽을 사람을 고려하여 추천사 쓰기	1차시

책과 친해지기

1. 책의 제목과 표지를 살펴보고, 작가의 말을 읽어 봅시다.
2. 각 단편의 그림과 제목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일지 상상하며 짧은 글을 지어 친구들과 나눠 읽어 봅시다.

단편	내가 상상한 이야기
 <p data-bbox="325 765 405 794">온쪽이</p>	
 <p data-bbox="282 1081 451 1110">나무가 된 아이</p>	
 <p data-bbox="322 1396 411 1425">뇌 엄마</p>	
 <p data-bbox="282 1711 451 1740">착한 마녀의 딸</p>	

단편	내가 상상한 이야기
 <p data-bbox="278 465 425 498">구멍 난 아빠</p>	
 <p data-bbox="297 788 406 821">웃는 가면</p>	

선생님께 그림과 함께 제목을 살펴보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고,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내가 상상한 이야기와 비교해 보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목독하기

목독으로 책을 읽고, 단편별 한 줄 느낌을 써 봅시다.

온쪽이	
나무가 된 아이	
뇌 엄마	
착한 마녀의 딸	
구멍 난 아빠	
웃는 가면	

단편 고르기

1.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을 고르고, 그 작품을 고른 이유를 써 봅시다

제목:	이유:
-----	-----

2. 친구들이 어떤 단편을 골랐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 보고 우리 반이 함께 읽을 단편을 정해 봅시다.

소리 내어 읽기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반 전체가 돌아가며 읽을 수도 있고, 모둠을 나눈 뒤 모둠원들이 차례대로 돌아가며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짝과 단들이 번갈아 가며 읽거나, 혼자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비경쟁 독서토론

1. 비경쟁 독서토론을 합니다.

비경쟁 독서토론 1단계: 제대로 읽기(정직한 독자 과정)

〈책을 제대로 읽어요〉

책 읽은 날짜	월	일	모둠명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 있게 읽은 구절 (쪽수 표시)			
이 구절을 고른 이유			

선생님께 1단계는 '정직한 독자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책을 제대로 읽는 단계입니다.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의미 있게 읽은 부분에 줄을 긋거나 표시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의미 있게 읽은 구절을 각자 종이에 쓰고 그 까닭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모둠에서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뽑고 다른 모둠에 소개합니다. 모둠에서 정리한 것을 벽면이나 이젤에 부착하고 전시회 구조로 돌아다니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다소 지루할 수 있는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다른 모둠의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인상 깊은 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점, 칭찬할 점 등을 기록합니다.*

*출처: 이효재 외 7인(2018), 『당당한 독자들의 즐거운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예시〉

작품명	문장	이유
「온쪽이」	집까지 뛰어가고 싶지만, 절대 뛰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다.(7쪽)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워서 수오는 빨리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거야.’라는 엄마의 말이 떠올라 뛰지 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나무가 된 아이」	“선생님은 못 봐, 아니, 어른들은 못 봐.”(28쪽) 필순이가 나무가 아닐 때도 담임은 필순이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29쪽)	아이들의 따돌림을 방관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슬프다.
「뇌 엄마」	언젠가 엄마를 보내 줄 거야. 엄마가 훨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 높이 날아가 바람의 냄새를 맡고 구름의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61쪽)	뇌 엄마를 언젠가는 떠나 보내려는 주인공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착한 마녀의 딸」	마녀는 바이올렛이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마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64쪽)	마녀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 베푼 친절이 나중에는 마녀의 죽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구멍 난 아빠」	아빠에게 구멍이 생긴 이유를 물었다. 아빠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꿈을 잃어서가 아닐까.”라고 중얼거렸다. (88쪽)	“꿈을 잃어서가 아닐까.”하는 아빠의 대답에 마음이 짠해진다.
「웃는 가면」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수지를 떠받 들고 싶진 않았어. 나는 수지처럼 되고 싶었지 수지의 추종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 (100쪽)	마지막에 주인공이 수지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이다.

비경쟁 독서토론 2단계: 질문하며 읽기(질문하는 독자 과정)

〈책과 저자에게 질문하며 읽어요〉

<p>내가 만든 질문 (질문과 관련된 쪽수 표시)</p>	<p>★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는 멋진 사람입니다!</p>
<p>질문을 만든 이유</p>	
<p>우리 모둠에서 고른 좋은 질문과 그 질문을 고른 까닭</p>	
<p>질문 나눔</p>	

선생님께 2단계는 ‘질문하는 독자 과정’입니다. 먼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작가, 책의 내용,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고 질문을 만든 이유를 씁니다. 보통 질문을 쓰면 답을 쓰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만든 이유를 씁니다. 역시 모둠에서 대표 질문을 정하고 다른 모둠에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방법은 전체에게 발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질문을 만든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른 모둠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바꿔 가며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연극 ‘핫시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가, 등장인물에 관한 질문을 고른 뒤 그 인물이 되어 볼 사람을 선정합니다. 전체 학생들 앞에 자리를 준비하여 앉도록 합니다. 앞에 나온 학생은 질문 속 인물이 되어 답하고 다른 학생들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생각을 나눕니다.*

*출처: 이효재 외 7인(2018), 『당당한 독자들의 즐거운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예시〉

작품명	질문
「온쪽이」	<p>내가 수오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남달라서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내가 가진 특별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p>
「나무가 된 아이」	<p>왜 필순이는 나무가 되었을까요? 어른들은 왜 식물이나 동물로 변한 아이들을 보지 못했을까요?</p>
「뇌 엄마」	<p>뇌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면 엄마와의 이별을 막기 위해 이터널 브레인을 선택할까요? 엄마를 떠나보낼까요?</p>
「착한 마녀의 딸」	<p>왜 바이올렛은 친구들의 부탁을 다 들어줬을까요? 아이들의 어떤 마음이 바이올렛을 불태우게 했을까요? 딸의 죽음을 알게 된 착한 마녀는 어떻게 했을까요?</p>
「구멍 난 아빠」	<p>왜 엄마와 아빠의 등에 구멍이 생겼을까요? 지훈이는 엄마와 아빠의 싸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p>
「웃는 가면」	<p>미유가 수지의 선택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미유처럼 혼자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싶나요? 아니면 수지처럼 모든 아이들의 주목을 받고 싶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쓴 것처럼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p>

비경쟁 독서토론 3단계: 토론하며 읽기(토론하는 독자 과정)

〈우리의 생활 문제를 연결하여 토론해요〉

책 읽은 날짜	월	일	모듬명
책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고민 내용			
내가 정한 토론 주제			
모듬 토론 주제			
토론 과정			
토론 소감			

선생님께 3단계는 ‘토론하는 독자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민하는 과정으로 독서와 삶이 연계될 수 있으며 책 읽기를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책에서 벗어나 내 주변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토론 주제를 생성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문제의 발견에서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논의’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것을 찾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 교사는 아이들이 토론 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되 토론 주제 생성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친구들과 함께하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출처: 이효재 외 7인(2018), 『당당한 독자들의 즐거운 만남 비경쟁 독서토론(초등학교)』, 경상남도교육청

〈예시〉

작품명	토론 거리
「온쪽이」	장애를 가진 친구와 같은 반에서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람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나무가 된 아이」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나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뇌 엄마」	사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터널 브레인파 사이보그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착한 마녀의 딸」	역사적으로 마녀 사냥은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나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구멍 난 아빠」	어른이 되면서 꿈을 잃어가거나 꿈을 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꿈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웃는 가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특별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택 활동

「온쪽이」

1. 핫시팅으로 등장인물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등장인물 (수오, 수오 엄마, 수오 아빠, 수술 받은 다른 온쪽이 등)	하고 싶은 질문
예) 수술 받은 다른 온쪽이	수술로 반쪽이가 된 삶에 만족하나요?

2. 온쪽이의 엄마 아빠가 되어 짝과 함께 역할극을 해 봅시다.

상황1. 초등학교 입학 전 보통 학교를 보내려는 엄마와 특수 학교로 입학시키려는 아빠의 갈등	상황2. 중학교에 가기 전 분리 수술을 두고 엄마 아빠가 다투는 장면
<p>엄마:</p> <p>아빠:</p>	<p>아빠:</p> <p>엄마:</p>

선생님께 책에서 해당 상황을 찾아 인물의 말과 행동 중심으로 옮겨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짝과 함께 역할극을 해 봅니다. 인물의 말이나, 대화글이 극을 하기 좋지 않을 때는 입말로 바꿔 써도 좋습니다.

3. 병원에서 만난 수술 받은 다른 온쪽이의 입장이 되어 상상하여 써 봅시다.

선생님께 쓰기 전에 아이들과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지 가볍게 이야기 나누고, 쓰는 활동을 하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됩니다. 병원에 오기까지 겪었을 일, 고민, 수술 후 마음 상태, 온쪽이를 병원에서 마주했을 때 기분과 감정 등을 넣어 쓸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나무가 된 아이」

1.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마치 사진을 찍듯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봅시다.

인상 깊은 장면	예) 나무가 된 필순이의 뿌리에 물을 주는 장면
마음의 소리	예)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해…… 이 물이라도 마셔.

선생님께 학생이 처음에는 정지 동작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어깨를 톡톡 치면 그 상황에 어울리는 대사, 마음의 소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빈 의자 기법으로 등장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전해 봅시다.

등장 인물	해 주고 싶은 말과 이유

선생님께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둘러앉아 교실 한 가운데 빈 의자를 두고, 그 빈 의자를 보며 한 명씩 이야기합니다. 한 명씩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학생 전체가 그 말을 반복하면, 감정이나 느낌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뇌 엄마」

1.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을 찾아 쓰시다.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쪽)

2. 내 마음을 두드린 문장에 알맞은 감정을 넣어 낭독해 봅시다.

3. 핫시팅으로 등장 인물에게 질문해 봅시다.

등장인물(뇌엄마, 아빠, 나)	하고 싶은 질문

4. 뇌 엄마와 주인공이 되어 소리 터널로 해 주고 싶은 말과 이유를 쓰고 전해 봅시다.(짝활동)

인물	해 주고 싶은 말과 이유
뇌 엄마	
주인공	

「착한 마녀의 딸」

1. 인상 깊었거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봅시다.

내가 찾은 문장(쪽)

2. 낭독극으로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께 학급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둠 수 만큼 글을 나눕니다. 각 모듬은 정해진 부분을 낭독극으로 표현하기 좋게끔 바꿔 씁니다. 이때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필요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모듬별로 극본을 정리하게 한 후 연습하고, 전체 낭독극을 합니다.

3. 책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연극으로 표현해 봅시다.(모듬별)

선생님께 각자 마지막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쓴 뒤에 모듬별로 공유하며, 연극으로 표현할 이야기를 정합니다. 상상한 내용을 연극 대본으로 쓰고, 연극으로 표현해 봅니다.

「구멍 난 아빠」

1. 등 한가운데에 난 구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구멍은 작아지지 않고 점점 커졌을까요?

2.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 그날 있었던 일과 감정을 넣어 일기를 써 봅시다.

3. 작품 속 엄마, 아빠의 꿈이 무엇이었을지, 어떤 삶을 살고자 했을지 상상하여 표현해 봅시다.

「웃는 가면」

1. 감정을 살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변형 놀이를 해 봅시다.

놀이 방법

- ① 가위 바위 보로 술래 한 명을 정합니다.
- ② 술래는 벽을 보고 돌아섭니다.
- ③ 술래가 어떤 가면을 나타낼지를 외치고 고개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은 술래가 외친 가면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는 가면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외치면, 우는 표정이나 슬픈 표정 등 자신이 상상한 ‘우는 가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 ④ 술래를 바꾸어 가며 놀이해 봅니다.

2. 등장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 찾아봅시다.

등장인물	인물의 말과 행동
미유	말: “그만둬. 네 목적이 뭘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세상 누구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아.” 행동: 단호하고 소신 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3. 아래 문장의 다음에 이어질 생략된 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봅시다.

수지가 새빨간 혀로 자기 입술을 할퀴었다. 입가에 떠오른 사악한 미소가 서서히 천사의 미소로 바뀌어 갔지. 저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111쪽)

4. 생략된 이야기를 즉흥극으로 바꿔 표현해 봅시다.(짜활동)

추천사 쓰기

1.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읽을 사람을 고려하여 추천사 써 봅시다.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	내용